

세희망의 길

세희망의 길
VOL.29



기획특집

창립 35주년 맞은 KT노동조합

현장 24시

Big Data 사업추진단 데이터가치기획팀

KTTU 카툰

올해부터 달라진 복지·보수·인사제도 주요 변경 내용

KTTU 클로즈업

안식년 휴가를 활용한 가족 배낭여행 후기

모든 시작이 다 희망인 것을

춡고 고단한 겨울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지만 별은 한결 포근해 졌습니다.
질은 어둠을 뚫고 새해가 밝은 것처럼
흑독한 겨울을 견디자 따스한 봄이 찾아 옵니다.

2017년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기대와 흥분, 설렘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팎의 여러 악재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로인해 무기력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조심히 되돌아봅니다.

올해 12대 집행부는 마지막 3년을 맞았습니다.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아쉬움을 개선하고 보완해
노동조합을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향상, 현장 중시 경영을 통해
현장이 살아있는 KT, 현장이 행복한 KT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회사와 대등한 경영 파트너로서 과감한 비판도 아끼지 않으며
노사공동체인 UCC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vol.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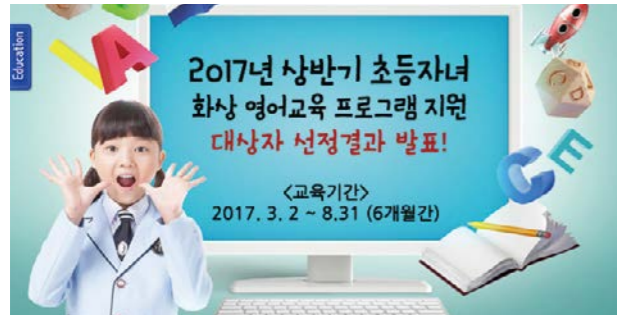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창립 35주년 맞은 KT노동조합
KTTU Mate	12	박갑진 KT파워텔 노조위원장
이슈&사회	14	우리 세대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장 24시	16	Big Data 사업추진단 데이터가치기획팀
KTTU 카툰	20	올해부터 달라진 복지 · 보수 인사제도 주요 변경 내용
KTTU 리서치	22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KTTU 레이더	24	김주영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KTTU 클로즈업	26	안식년 휴가를 활용한 가족 배낭여행 후기
토닥토닥	28	채팅부터 해킹까지 영화 속 통신기술
길따라 멧따라	30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본 자유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KT TRADE UNION NEWS

2017년 상반기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KT노사는 2월 14일(화), 본사 KBN 방송실에서 조합원 초등자녀 화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10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에는 노사 각 2명씩, 노동조합 유대중 지원국장, 홍정성 복지국장과 회사측 최호창 기업문화담당, 정인용 경영혁신담당이 참여했으며, 13개 기관별 박스 추첨을 통해 진행했다.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이며, 교육지원 대상은 초등 4,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총 210명의 학생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화상 영어교육이 진행되며,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한편, 2017년 상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지원 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추첨과정은 KBN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 ※ 최종 선정된 직원에게는 차후 개별 안내를 진행합니다.
- ※ 선정자(4, 5, 6학년 각 7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장기근속 조합원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2017년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한다.

- 대상 및 휴직기간
 - 신청대상 : 전 직원(상무보/임원/계약직 제외)
 - 근속 1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 근속 2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또는 1년 휴직 中 선택

■ 신청 자격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휴직복귀 예정일 기준)
-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사면 시 신청가능



■ 선발 절차

- 시행공고 → 신청서 제출 → 심의 → 최종 선발
- 휴직 희망자는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 부문/본부별 인사위원회 후 인사권자(부문장/지역본부장)가 최종 선발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7.02.08(수) ~ 02.14(화)
-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02.15(수) ~ 02.21(화)
- 선발자 최종 확정 : 02.22(수)
- 업무 인수인계 : 02.22(수) ~ 02.28(화)
- 리프레시휴직 시행 및 발령일 : 2017.03.01

2017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및 전국 대의원 248명 및 1개 지부 대표자 선출



KT노동조합은 2월 6일(월) 전국적으로 지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기초단위인 각 지부의 2016년 지부사업 결과와 2017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현장의견을 노동조합 집행부에 전달하고 2017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 248명의 대의원 및 지부장 1명의 선출을 완료했다.

대의원은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은 각 지부에 격려를 보내 "12대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1, 2년 차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조합사업을 그 어느 해보다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임금과 복지의 대폭 향상, 현장 중시경영을 통해 현장이 살아있는 KT, 현장이 행복한 KT를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약속한 뒤 '회사와 대등한 경영의 파트너로서 과감한 비판 역시 아끼지 않을 것'과 '노사공동체인 UCC 활동을 대폭 활성화 시켜 우리사회의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감싸 안을 것'을 피력했다. 한편, 지부대회에 이은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지방본부별로 개최했다. 선출된 대의원 및 지부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부장 보궐선거 결과]

충북지방본부 청주지부 고재성

[2017년 전국 대의원 선출명단]

강북 지방본부(30명)

김재준(강북고객본부), 이완재(중앙), 최석순(원호), 김동현(서대문), 전용섭(은평), 기남로(신촌), 이재형(광화문), 인윤식(동대문), 박종국(광진), 이주호(성수), 하태석(종로), 박용성(노원), 김정호(도봉), 손영국(월곡), 김중성(강북), 이창주(고양), 박종욱(덕양), 이진구(파주), 이원용(의정부), 김산성(동두천) 이동철(포천), 진정현(구리), 이시찬(남양주), 황건선(양평),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강윤식(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김명수(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유지영(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최효규(IP운용센터), 박근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강남 지방본부(27명)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손득모(송파), 박정삼(강동), 유병탁(가락), 유광섭(강남), 전성욱(반포), 정차석(서초), 이성구(신사), 박성순(양재), 오은호(수원), 신양호(남수원), 이창일(동수원), 김대진(용인), 김용배(수지), 지영근(여주), 김학능(이천), 김재후(평택), 이송찬(안성), 정상철(오산), 남기형(화성), 허남일(분당), 오정근(경기광주), 이정형(성남), 최원영(하남),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 정영근(서울강남유선운용센터), 황윤규(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서부 지방본부(33명)

이현철(서부고객본부), 김수홍(강서), 강일모(가양), 김혜광(목동), 최준명(구로), 김영필(금천), 한원호(개봉), 안진홍(영등포), 김성배(여의도), 김진규(동작), 유희수(관악), 엄금용(대방), 최우회(안양), 임영락(서안양), 이평수(군포), 김덕기(안산), 유광림(동안산), 허준호(시흥), 박성산(부천), 차홍열(북부천), 민형식(부평), 김오철(계양), 이정각(인천), 박은규(연수), 박원호(송의), 김윤철(서인천), 김철호(김포), 안상호(항동), 윤용현(강서무선운용센터), 김성만(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최희웅(인천유선운용센터), 허준욱(미디어운용센터), 박연조(강남엔지니어링센터)

부산 지방본부(39명)

정영근(부산고객본부), 정정석(동부산), 김수택(양산), 박상일(동래), 이기혁(연산), 김경철(기장), 최형진(서부산), 김진용(사하), 이동수(영도), 김동철(남부산),

유진철(해운대), 이성철(서면), 최광준(대연), 이창림(수영), 남상길(북부산), 황일용(김해), 고정규(구포), 김상찬(창원), 정성민(마산), 서명구(밀양), 박영용(진해), 윤해(함안), 백한준(울산), 임태일(남울산), 김석준(동울산), 이식원(언양) 강동만(진주), 김원용(거제), 김도형(통영), 권구호(사천), 김익중(거창), 박찬기(산청),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최영철(부산유선운용센터), 윤태근(경남유선운용센터), 최용석(울산유선운용센터), 유병철(부산엔지니어링센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이재수(부산컨설팅)

대구 지방본부(27명)

추교권(동대구), 김종우(수성), 손상학(경산), 이영택(영천), 김수영(달서), 박순목(남대구), 하중열(중대구), 김주혁(달성), 정영식(서대구), 허운하(북대구), 정명호(칠곡), 김동영(구미), 박명서(김천), 천명호(상주), 이원중(포항), 윤용현(경주), 최진환(울진), 이찬원(안동), 송홍경(영주), 윤원상(문경), 권오용(청송), 육상욱(대구고객본부), 차용대(대구유선운용센터), 이준석(동대구유선운용센터), 이재연(경북유선운용센터),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김성삼(대구엔지니어링센터)

본사 지방본부(14명)

이영인(기업컨설팅센터), 최중국(수납지원센터), 박종문(국제전화국), 민병훈(BizCRM센터), 한익희(IMO운용센터), 김형욱(네트워크관제센터),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장성업(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 김용범(융합기술원), 이성갑(Infra연구소), 김상현(Service연구소), 김수진(구매지원센터), 천성영(그룹인력개발원), 노일철(본사)

전남 지방본부(19명)

홍유선(강진), 심금식(광양), 류재수(광주유선운용센터), 강성봉(광주), 정영근(나주), 한승학(남광주), 고일남(담양), 박상수(목포), 박진수(북광주), 선종민(서광주), 김광수(수원), 신봉주(순천), 김응연(여수), 이인철(전남고객본부), 박상운(전남유선운용센터), 채희원(해남), 박홍주(호남IP컨설팅), 김정필(호남무선운용센터), 박태규(호남엔지니어링센터)

전북 지방본부(9명)

윤기성(전주), 임정택(북전주), 진홍윤(남원), 노용환(익산), 김성수(군산), 이광욱(정읍), 정광모(김제), 박호남(전북고객본부), 김형선(전북유선운용센터)

충남 지방본부(24명)

오동석(충남고객본부), 한금수(서대전), 김명길(서대전지점), 이광엽(유성), 성기세(세종), 장대연(논산), 김용섭(공주), 주현수(홍성), 장동인(서산), 유효중(당진), 김용길(부여), 김성용(보령), 명노승(예산), 신선섭(천안), 김성수(아산), 조규정(남천안), 김경찬(대전), 박재용(용진), 윤용재(신탄진), 강희석(충청무선운용센터), 정학영(대전유선운용센터), 이종훈(충남유선운용센터), 오동윤(충청엔지니어링센터), 권승태(충청고객컨설팅)

충북 지방본부(9명)

장남진(충북고객본부), 고재성(청주), 이학승(서청주), 신한식(옥천), 최재용(충주), 송창규(제천), 이춘영(금왕), 장민철(진천), 김종원(충북유선운용센터)

강원 지방본부(12명)

안상진(춘천), 윤필상(홍천), 황원중(화천), 권찬순(강릉), 박광호(속초), 박한수(동해), 박준수(원주), 엄기현(평창), 박영섭(태백), 이혁중(강원고객본부),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제주 지방본부(5명)

현성환(제주고객본부), 홍관표(제주), 최태중(신제주), 이조희(서귀포), 김희철(제주네트워크)

2017 상반기 신입 조합원 대상 특강... 노동조합의 조직 및 정책 · 현안 · 복지 등 소개



KT노동조합은 1월 25일(수) KT그룹인력개발원에서 170명의 2017년도 상반기 신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신입 조합원 특강은 ▲노동조합 역할 ▲노동조합 구성과 조직 소개 ▲KT복지제도 설명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은 KT노동조합의 지난 역사적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상 조합활동 △홍보 및 봉사활동 △전국IT사무 서비스노동조합연맹 연대 등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정윤모 위원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최장복 조직실장은 신입 조합원을 환영하며 "KT노동조합은 형식적인 명분주의 보다는 조합원 관점에서 사고하고, 조합원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 근로조건 및 환경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성과보로금, 1월 성과급, 임금피크 대상자 성과보상금 지급



2016년도 단체교섭 및 노사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과보로금, 전사성과급, 임금피크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 성과보로금
 - ▶ 지급대상 : 합의일('16.11.15)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17.1.25) 현재 재직자
 - 전문경력직/재직전출자 포함, 임원/상무보/계약직 제외
 - ▶ 지급액 : 1인당 150만원
 - 계산기간 : 2016.1.1~11.15
 - 계산기간 중 휴직 및 무급일수 감액하여 지급(성과급 기준과 동일)
 - ▶ 지급일 : 2017. 1.25(수)

- 1월 성과급(전사성과급)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A직/C직/Sales직(청원경찰 포함)
 -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기준급 × 지급률
 - 지급률 : G직 125%, A직 100%, C/Sales직 62.5%
 - ※ C직/Sales직의 전월 실적을 반영한 가감 정산은 1월 정기급여에 반영
 - 계산기간 : 2017.1.1~1.31(G/A직 限)
 - 계산기간 중 휴직 및 무급일수 감액하여 지급
 - ▶ 지급일 : 2017. 1.25(수)
- 임금피크 대상자 성과보상금
 - ▶ 지급대상
 - 2016년도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2016년 이전 대상자 포함) 중 2016년도 인사평가(성과/역량) G/G 이상인 직원
 - ▶ 지급기준

역량/성과	S	E	G
S	400만원	330만원	190만원
E	370만원	300만원	160만원
G	310만원	240만원	100만원

 - ※ C직/Sales직은 상기 금액의 70% 지급
 -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과보상금 미지급
 - ▶ 지급일 : 2017. 1.25(수)

KT동우회 신년 하례회 참석, 'KT노사 발전을 위한 충고와 관심 부탁'



KT노동조합은 1월 12일(목) 강북지방본부 생활관에서 개최된 'KT동우회 신년 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KT동우회 이준 회장을 비롯해 이우재, 이해욱 前 KT 사장들과 동우회 회원, 그리고 KT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 KT 이대산 경영관리부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우회 추진활동 보고 등 오찬을 통해 동우회 회원간 친목 교류가 있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성관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KT의 든든한 후원자인 KT동우회와 이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께 인사를 드린다"며, "KT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께서 잘 닦아놓은 터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최근 KT가 저성장의 굴레와 어려운 시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

력감을 가지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KT노동조합과 KT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도 미래를 향해 도전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고 위기와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중앙상집회의 열어, 'CEO 연임 선언에 따른 조합 입장 발표의 건' 심의·의결



KT노동조합은 1월 10일(화)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창규 CEO 연임 선언에 따른 KT노동조합 입장 발표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CEO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이해관계 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KT에 대한 공로는 별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뒤 '향후 KT와 조합원을 위해서는 황창규에 대한 연임을 지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기업의 CEO 선임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개인적 친분에 의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전과 전문성,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KT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한 것은 물론, 특히 KT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황창규 CEO 연임 선언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발표의 건'은 회의에 참석한 중앙상무집행위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확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KT노동조합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박호근 여성국장이 정보통신산업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표창을 수여 받았다.

2017년 자기계발비 신청안내

조합원의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을 위하여 자기계발비 지원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기계발비를 신청하신 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 (전문경력직, 재직전출자 포함)

- 사용방법
 -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사용 후 지급
 - 사외교육 : 사외전문 프로그램 (포럼, 세미나 포함)
 - 학원 : 어학(온라인강의, 전화영어 포함), IT/컴퓨터, 인문/예술, 기술, 창업 등
 - 자격취득 : 응시료, 교재비, 학원수강 등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비
 - 도서구입 :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구입, e-book 구입
 - 체력단련 : 헬스수영,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이용 등 (개인레슨 포함)
 - 기타 : 승인자가 요청자의 자기계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 매년 1인당 연간 50만원
 - 매년 1.1 ~ 12.20 사용한정, 당해 연도 미사용 잔액 자동소멸
- 지급방법 : 월 1회 지급
 - 신청은 연간 한도금액에서 1회 또는 여러번 신청가능
 - 매월1일 ~ 말일 승인된 금액은 익월 14일 지급(단, 12월 사용분은 12월말 지급)
- 신청방법 : 자기계발에 사용된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위치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자기계발비 메뉴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후 영수증 확인후 소속 팀장에게 승인(ERP)
 - ※ 영수증 원본은 개별 보관
 - ※ 지급후 거래취소 등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처분
 - ※ 연도 중도입사자도 전액 지원

2017년 상반기 복지포인트 총선

- 복지포인트 총선
 -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상무보 이하 전 직원(청원경찰, 전문경력직 포함)
 - 일반, 파견계약직/ 재직전입/ 창업지원 무급휴직자 제외
 - 총선포인트 : 공통 130만 포인트
 - 가족임원 실손보험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 차감 후 지급
 - 총선일 : 2017. 1. 6(금)
 - 복지포인트는 총선일 이후 3년 이내 사용가능
 - 복지포인트 총선내역 확인
 - 개인형 복지카드 → <http://ibene.co.kr/kt> (KT복지관 사이트)
 - 법인형 복지카드 → <http://wfc.wooribank.com/>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 031-727-4037





창립 35주년 맞은 KT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 대신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된 생일맞이

정윤모 위원장, “더 가까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현장이 살아 숨쉬는 KT를 완성하겠다”

2000년 이후 통신시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우리 조합원들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시장과열과 유무선 융합이라는 새로운 통신환경에 부지런히 적응하고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어느덧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선두기업으로 성장한 KT 뒤에는 열정을 다해 묵묵히 땀 흘린 선배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질책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노동조합의 35년 역사는 KT의 자화상이자 구성원 모두의 세월이기도 하다.

2017년을 맞으며 정윤모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12대 집행부 3년차인 만큼 그 동안 이행했던 공약사항들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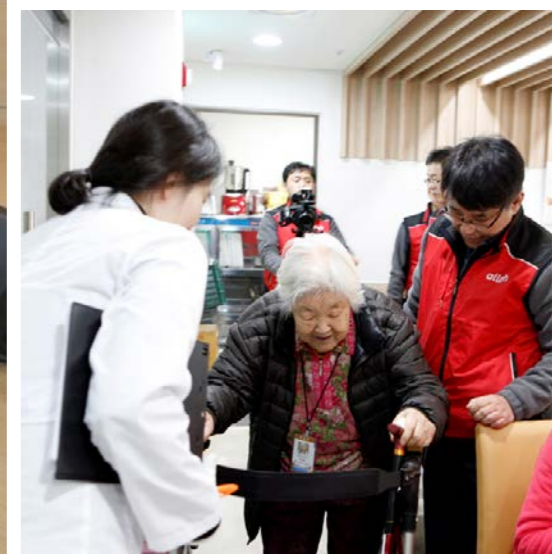
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이 멀어지면 노동현장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주인인 조합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작년 한 해 현장중심 정책의 강화로 조합원의 크고 작은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나 임금이나 복지 등 조합원의 요구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윤모 위원장은 “올해는 중앙상집 간부가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현장의 미진한 부분을 빠짐 없이 살피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12대 집행부의 공약을 완성해 나가자”고 여러 번 강조했다.

우리 모두의 자부심과 만족감 위해 달리겠다

창립일에 앞선 지난 1월 2일,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관 사무총장,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최장복 조직실장, 차완규 정책실장은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진행된 '노사합동 신년 결의식'에 참석해 경영진과 함께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는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신년 응원 선물을 증정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작년 이 자리에서 ‘허수경영 철폐’, ‘무분별한 휴일 근무 근절’, ‘노사합의사항 철저 이행’, 이 세 가지를 약속했었다” 회고한 뒤 “일 년간 현장을 쪽 지켜봐 온 바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고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어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조합원들께 약속 드린 공약 중 아직 완성하지 못한 몇 가지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임금·복지의 대폭 향상, 현장중시경영, 대등한 노사관계, UCC 활동 확대’를 올해 안에 꼭 이루어 내겠다는 염원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의 진정한 가치는 일하는 자들의 권리와 처지가 개선될 때 빛나는 것이다. 정윤모 위원장과 노동조합은 신년 초부터 노동조합은 물론 1만 8천 조합원 모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위해 한 방향으로 달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이에 본사지방본부의 한 조합원은 “집행부가 걱정만 한 임금, 복지 등의 향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으니 재작년 보다 작년, 작년 보다 올해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내비쳤다.



기념행사 대신 봉사과 후원물품 증정으로 차분히 진행된 생일 '2017년 새해맞이孝心잔치' 봉사활동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다. 지난 82년 1월 6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국내최대통신노동조합으로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걸어온 KT노동조합이 창립 서른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았다. 노동조합은 35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화려한 기념식 대신 좀 더 뜻 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1월 6일(금) 오전 11시부터 성남 위례중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살피고 후원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경로효친 함양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위원장

을 비롯해 전 조합 간부들이 함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세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서 뵈게 되니 한 분 한 분이 제 부모님처럼 반갑고 살가운 한편 숙연한 마음도 든다"고 인사한 뒤 "KT노동조합은 어르신들께서 늘 존경 받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찾아 뵈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모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더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KT노동조합에서 준비한 음식과 공연을 원 없이 즐기시고 늘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다"고 전하자 신명 난 어르신들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신명 나는 공연에 덩실덩실, 어르신들의 춤과 폭소 이어져

이날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복지관 식당 배식을 시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및 설거지 지원, 어르신들 간식용 팝콘 만들기과 잔치공연, 후원물품 전달 순으로 이루어졌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원로 가수들과 코미디언이 등장한 이날 공연은 200석 좌석이 꽉 차는 높은 호응 덕에 몇몇 어르신은 빈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을 만큼 큰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원로 코미디언 김성남씨의 사회로 흥겨운 경로잔치에 풍성함을 더했다. 배식과 어르신 안내 봉사를 담당 한 조합간부는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준

비 과정에서의 힘든 것도 잊고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간부들 역시 '우리만의 잔치였던 창립기념식을 잠시 접어두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같은 날 KT노동조합 12개 지방본부도 각 지역에서 '孝心잔치', 미혼모 시설 방문 및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펼쳤다. 흠뻑 젖은 열 사람 보다 뭉친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다.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대로, 조합원과 하나 되어 현장의 임고 및 복지,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나의 투쟁의 힘은 '소통'과 '신뢰'

그가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것은 작은 이유에서였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지난 1월 정유년 새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신입 박갑진 위원장의 머릿속엔 조합원들을 향한 소통과 신뢰의 밑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다.



KT파워텔 노동조합 13대 집행부
박갑진 위원장

나를 키워준 6년 동안의 집행부 생활

“조합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고 싶어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갑진 위원장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날 선 정치적 구호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공동체정신과 소통에 대해 많은 것을 강조한다.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선 강건하게 싸우면서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질 때는 동지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그가 노조활동을 시작한 것은 선배인 전임 정재진 위원장의 권유를 받으면서다. 당시 영업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체험하며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 후 노조에서 사무처장을 거치며 조합원들의 권익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게 6년 동안의 노조 간부 활동을 거친 후 그에게 노조위원장 출마의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

“간부 활동만 해왔을 뿐 위원장이 되어 노조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위원장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며, 회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선거 치르는 내내 조합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추구했어요.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어필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고 기본에 충실한 박갑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 조합원들의 열띤 지지를 받으며 당선, KT파워텔 13대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장이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이다.

“회사에서 제도를 만들 때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보다 개방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령 가정의 날인 매주 수요일엔 정시 퇴근을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연초에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휴일을 체크하며 회사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조합원들을 위해 다가가야지요.”



조합원과 회사 모두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KT파워텔은 TRS(주파수공용통신) 기반의 무전통신 서비스 회사다. 지난 1985년 설립되어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시스템을 시작으로 WCDMA를 거쳐 현재는 KT의 LTE 기반의 라저(Radger)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토로라 '아이덴' 단말기를 기반으로 800Mhz 주파수 한 가지만을 공급했으나 KT LTE망으로 승격되면서 800, 900Mhz와 1.8Ghz 등 세 가지 영역의 주파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마트나 백화점 등 쇼핑센터를 비롯해 택배, 화물트럭, 택시 등 물류 현장과 호텔,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무전통신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LTE 망으로 넘어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과도기를 맞고 있어요. 800Mhz 단말기를 공급했을 때 전국 2천여 개의 기지국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KT LTE망을 이용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모델을 찾아가며 사업다변화를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시스템을 대규모로 전환하면서 회사는 경영의 어려움, 노조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며 둘 다 위축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합심해 노력하는 한편 사측과 맞서야 할 땐 더욱 강건한 태도로 노조를 이끌어갈 것”이라 다짐한다.

“노조에선 '투쟁'이나 '동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단합'이나 '단결'이란 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힘을 발휘하려면 조합원들의 단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조합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노조와 회사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투쟁하고자 합니다.”

박 위원장은 15명의 간부들과 함께 힘을 모아 13대 집행부를 이끌 계획이다. 일반조합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후 노조 활동을 위해 줄린 눈 비벼가며 헌신하는 간부들이 그에겐 가장 소중한 동지들이다.

“근무시간을 다 채운 후 조합원들을 만나가며 열심히 노조 활동하는 간부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간부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 솔선수범하며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유년 새해 시작과 함께 KT 각 단위에서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곳이 많다. 다들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박갑진 위원장은 KT파워텔의 경영난을 이겨내기 위해 KT 전체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동지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한다.

“KT파워텔은 직원이 200명에 불과하지만 KT 그룹 전체는 6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그룹 안에서 신사업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서로 도우며 협업체 나가길 기원합니다. KT 전체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ISSUE & SOCIETY

우리 세대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버스 안내원, 전화 교환원, 극장 간판 화가.
30년 유행했던 이 직업들은 오늘날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는 직업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각 직업들의 실제 만족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뜨게 될 직업과
사라질 운명에 처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래 유망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새로운 직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과학자, 경찰, 교사 등 전통적 형태의 직업을 포함해 펀드 매니저, 컴퓨터 프로그래머, 파일럿 등 문명이 발달하면서 출연한 직종 역시 20년 후에도 꾸준히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당시 선호됐던 전문직 중의 하나는 '전차 운전사'였다. 예전에 없었던 세련된 직업이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엘리트 직종으로서 당시 젊은이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

요즘은 앱 개발자, 프로그래머, 웹툰 작가, 생명공학자 등의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직업이란 것이 시대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 직업들이 언제 사라질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현재 개발된 신기술이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등을 분석해 새롭게 태어나고 없어질 직업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교사'가 되고픈 우리나라 청소년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 전문가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가장 비전이 높은 미래의 직종을 알아본 결과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이 가장 높은 선호를 받았으며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과 '항공기 정비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직업군에는 'IT, 환경,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 신산업분야의 직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의사, 공무원, 법조인, 요리사, 간호사, 생명과학자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10년 동안 초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한 직업 1위가 '교사'였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과거 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아실현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대기업의 임원(1억6천4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도선사(1억3천3백만 원), 국회의원(1억2천1백만 원), 대학교 총장(1억1천5백만 원), 의사(1억 원) 순이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직업은 연극배우(980만 원), 수녀(1천2백만 원), 가사도우미(1천4백만 원), 미화원(1천4백만 원), 단역배우(1천5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각 직업종사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우리나라 직업인 직무만족 실태>에선 박물관 및 문화재 큐레이터가 5점 만점에 4.26


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나운서/리포터(4.23), 인테리어 디자이너(4.22), 문화예술 종사자(4.21), 항공기 파일럿(4.17), 판사/검사(4.15), 한의사(4.11)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2.35)였으며 플라스틱 제품 생산원(2.52), 용접공(2.57), 미장공(2.57), 택배기사(2.59) 순이었다.

10년 후 우편배달원이 사라진다

'U미래보고서 2025'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질 직종 1위는 우편배달원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2012~2022년에 우편배달원의 고용하락률은 무려 28%에 달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터넷쇼핑 업체들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근거리 무인배송시스템이 발달하면 그만큼 택배 배송기사를 비롯해 음식배달원 등의 구인 수요가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편배달원 다음으로 고용률이 떨어질 직종은 농부(19%), 검침원(19%), 저널리스트(13%), 여행사 직원(12%) 순이었다. 저널리스트는 온라인 및 1인 미디어 등에 밀려 지금보다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며,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호텔과 교통편을 예약하기 때문에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의 수요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외에 벌목공(9%), 항공기 승무원(7%), 시추공 엔지니어(6%), 인쇄공(5%), 세무사(4%) 등이 10년 후 자취를 감출 직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의 새로운 직업, 다섯 가지 키워드



- 01** 디지털 건강관리사, 가정주치의, 목표 자아 평가사, 결핍 분석가, 스킬 측정자, 바이오폐기물 최적화 전문가 등
- 02** IoT전문가, 장소정보 제공자, 효율성 컨설턴트, 소유권 네트워크 설치 전문가, 증강현실 건축가 등
- 03** 스포츠 과학자, 시뮬레이션 전문가, 신체 수정 윤리학자, 선수자격 분석가, 슈퍼 베이비 디자이너 등
- 04** 드론 관련 전문가, 무인항공기 분류·표준 전문가, 도킹 디자이너, 환경오염 최소화전문가, 자동화 엔지니어 등
- 05** 3D프린터 종사자, 소재 전문가, 설계 엔지니어, 비주얼 상상가, 음식프린터 요리사, 3D 의류패션디자이너 등

“KT가 가진 데이터로 인류사회에 기여하니 뿌듯합니다.”

해외로밍 빅데이터,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서비스 시대를 열다



본사지방본부 Big Data 사업추진단 데이터가치기획팀

이재호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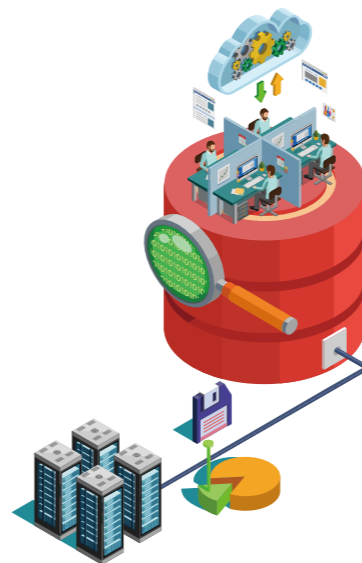
바야흐로 ‘빅데이터(Big Data)’ 시대다. 2011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빠른 유행을 타기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도 그 효용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인프라, 플랫폼, 분석, 활용시스템, 서비스 등 전 방위적인 과업으로 적용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발주되고 있다. 지난해 KT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로밍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호 조합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였다고 평가되는 이 사업의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다. 요사이 세 배는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가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들려주었다.

2014년부터 질병재해 차단 시스템 구축

2012년 빅데이터 부서가 처음 생긴 후 올해로 업무 5년 차에 접어든다는 이재호 조합원은 “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사업 시작 동기에 대해 운을 띄웠다.

KT 빅데이터사업추진단은 현재 61명, 처음 17명으로 시작한 조직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야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중 Big Data 사업추진단 데이터가치기획팀은 Big Data 이니셔티브 국정과제, 전사 Big Data 전략 수립, IoT-Big Data 시너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이재호 조합원이 감염병 차단 서비스 사업을 맡고 있다.

“빅데이터센터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유·무선 및 미디어 상품 사용 고객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업에 이용하는 등 빅데이터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내부 사업이라면 유·무선TV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고객의 해지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 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관광이나 교통정책, 아니면 감염병 등 공공목적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부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는 그 중 공공목적 사업 진행을 맡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인터넷 검색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등 디지털 환경에 우리가 남기는 모든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합원은 빅데이터는 기술의 발달이 이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과거에는 있어도 활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KT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재해 차단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온건 2014년 구제역 이후부터다. 가축 전염병의 경우 운반 트럭을 통해 최초 발생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는 점에 착안, 가축 운반 트럭의 운행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 발생 지역을 예측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데이터와 기지국 통계 데이터를 융합해 시의 확산이 사람과 차량의 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방역이 시급한 지역을 예상한 것이다.



로밍 데이터로 감염병 확산 방지 업그레이드

질병재해 차단 시스템이 해외 유입 감염병 경로 확산 방지로 범위를 확대 적용한 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시발점이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 우리가 직접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찾아갔어요. KT가 가진 통신데이터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니 감염병 경로 확산을 막는데 활용해보자고 제안했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한 달 정도 검역과 확산방지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외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강한 감염병들이 유행하고 국가차원의 대응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점에서 팀 내 감염병 조기 대응에 대한 고민은 이후 더 깊어졌다. 마침내 지난해 2월 이조 합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로밍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안했고 5월 업무협약 체결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의 2016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국내에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질병관리본부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서비스는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KT에 제공하면 KT는 가입자의 로밍 정보를 확인해 오염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정보만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는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오염국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감염병 최대 잠복 기간인 21일 동안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

본부로 자진 신고(1339) 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게 되죠. 예를 들어 메르스의 경우는 15개국 지카바이러스는 60개국이에요. 잠복기 기간내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조회 시 팝업으로 진료 대상자의 오염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처방하면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파악해 의료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과 조제내역이 축적되어 있다.

UN과 협력 하에 전 세계로 확대되는 서비스

사실 방역당국의 해외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은 빅데이터 적용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여권정보와 항공사의 항공여행기록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파악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여권은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항공 여행기록에 휴대전화번호가 누락돼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하고, 위험지역 방문 후 제3국가를 경유할 경우에는 이전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가입자의 사용번호를 기반으로 한 KT의 로밍 데이터가 적용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된 것이다.

이렇게 공익차원에서 시작된 일은 황창규 회장의 발표 이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라 본의 아니게 이재호 조합원은 이전보다 몇 배로 업무가 바빠졌다.

지난해 6월 뉴욕에서 열린 ‘UNGC Leaders Summit 2016’에서 황창규 회장은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인류 감염병을 차단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9월 유엔 산하기구인 UNGC(UN Global Compact)와 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확산 방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제안 내용은 전 세계 800여개 통신사업장의 로밍 데이터 공유, 국경을 초월한 각종 정보의 지원,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을 총괄하는 유엔의 지원 등 3단계였다.

“지속가능경영센터에서 케냐, 르완다, 유엔 등을 돌아다니면서 동참을 제의하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굉장히 큰 일이 돼서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도 하게 되었네요. 일은 세 배 늘었지만 보람도 커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공익목적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뿌듯하죠.”

자발적 동의환경 만들어져야

지난해 11월 16일부터 KT고객들에게 우선 적용되어 시작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는 정부의 지시로 올해 4월부터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KT의 뒤를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터가치기획팀은 2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와 협력하였다.

KT는 현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쇼핑 큐레이션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IoT건강관리 서비스, 차세대 미디어 그리고 지능형 교통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다.

빅데이터가 이처럼 분야별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지만,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공익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는 자체사업이라기보다 사물인터넷사업이나 인공지능 사업을 기능적으로 지원합니다. 제도나 법 제약에 대한 문제일 뿐 제조 부분에서 본다면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인도 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광고에 쓰일 수 있는 방향에 따라 우열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 정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메르스 같은 큰일을 겪지 않았다면 공공차원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라 해도 반발이 심했을 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관련 법률이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법적으로 풀기보다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게끔 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빅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호 조합원의 말처럼 빅데이터 시장이 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그 사업의 과정에는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가 중심이 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하지만 그 해석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복지·보수·인사제도 주요 변경 내용

만화 김재욱

2017년부터 바뀐 제도와 용어가 있다던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복지·보수·인사제도의 3가지 분야에서 달라졌습니다.

1 복지 제도

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대부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천만 원이 모자라네...

긴급가계자금 대부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소 대부금액 조정 2백 ⇒ 5백만원

연금저축 월 5만원 지원!

2017. 1. 25 기준 재직중인 직원 대상이죠 (계약직 제외).

※ 단, 2017. 3. 31 이전 입사자 포함 지원시기: 2017. 1월부터 (10년간)

인하 대상항목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긴급가계자금 (기존대부자 포함)

대부이자율도 2%에서 1%로 인하했네~!!

긴급가계자금 대부규모 확대 年 300억원 ⇒ 年 400억원 연 2회(1월, 7월) 시행

2 보수 제도

페이 밴드별

- ① 하한값: 406,000원 상향
- ② 중간값: 현재 상한값과 상향된 하한값과 평균액으로 재조정

과도한 목표, 달성 불가능한 PS 제도는 2017년부터 폐지합니다.

성과보로금 (PS포함)은 어떻게?

교섭을 통해 별도로 성과보로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금인상 정액 65만원 중 기준급과 역량급 인상분에 대한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준급+역량급 인상에 따른 Pay-Band 조정 및 분위 재설정

숙박비 현실화를 위해 상한금액 상향 조정됩니다. (10야당 5만원 ⇒ 6만원)

※ 불가피한 사정으로 숙박비 한도 초과 시, 별도 정산할 수 있음.

3 인사 제도

평기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 ◆ 평가대상: 평가기준일 재직중인 자
- ◆ 피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하지 않음.

직위해제 대상과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 부적절하다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한 자

평기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위해제, 징계의 사유 및 청렴의무에 부정청탁 금지 추가요~

여러분을 위한 변경 사항, 알아두세요!

금지선자, 한정선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불임 ⇒ 난임

민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사규정 용어 변경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정유년, 바뀌는 주요 제도 10



새해부터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총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바뀌는 가운데 교육, 일반공공행정, 여성·육아 및 보육, 공공안전 및 질서, 보건과 사회복지, 금융·재정·조세, 환경, 국방·병무, 농림·해양·수산, 국토개발, 산업과 에너지 등 분야별 정부정책,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바뀐 다양한 제도들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 중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10가지를 살펴보자.

0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제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 도 집과 직장의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 제한된다.

과시험 문항은 기존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났고, 장내 기는 시험은 가속구간, 좌우회전, 직각주차, 교차로, 경사로가 추가된 한편,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실격사유 5가지 항목도 추가 변경됐다.

02 2017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세종시와 전라남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해 수업준비와 태도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장 중심의 과정평가와 관찰평가를 강화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완전히 없앴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일제고사를 폐지한 바 있다.

04 LPG택시, 렌터카 중고구입 가능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자가 5년 이상 쓴 차량만 양도받아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출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택시나 렌터카 등의 LPG중고차 역시 일반인이 구입 할 수 있다. 또 카드로 중고차를 구매 시 10% 소득공제가 된다.

03 운전면허 시험 강화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었다.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미숙한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강화된 조치로 학과, 장내기능, 도로주행까지 전반적으로 변경되었다. 학

05 사행성규제 정책 개정

신고자의 참여를 유도해 사행성 규제와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는 정책이다. 기존 범죄수익환수 포상제도의 지급 절차는 범죄자 검거 후 수익금 환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루어졌지만, 이제 간소화되어 검거 전 범죄에 활용되었던 대포통장을 우선 압류조치 후 대포통장의 입금액 중 20%를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06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이 7.3% 상승되어 기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5만1,730원. 주당 40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전국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63곳에서 생활임금제를 따로 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작년보다 21만 9,868명 인상된 월 171만3,173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로 최저임금보다 29.9% 높은 8,410원이다.

반면, 올해는 소득세율 40%를 적용 받은 5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 한 해 동안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4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서민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아지며, 보증금지리론은 주택 가격제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강화하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07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상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09 임신부 지원비 개정

임산부는 1인당 진료비 50만원을,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은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늘어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08 세법, 대출법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과표소득 1억5,000만원~5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38%의 세율이 적용된

10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를 줄이기 위2017년 2월5일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올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 탓에 사분오열 됐던 한국노총 조직 내부를 통합하고

노동존중의 대한민국 건설에 힘 쏟겠다

김주영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신임 위원장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6대 위원장 선거에서 총 1735표(득표율 60.2%)를 얻어 임기 3년의 한국노총 수장으로 뽑혀 85만 조합원을 이끌게 됐다. 김 위원장은 당선 직후 "분열된 조직을 통합시키고, 현장 신뢰 강화, 정권 교체,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한국노총을 만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밝혔다.

Q 제26대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더불어 소감은 어떤가?

A 선거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노총이 산별과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었다. 소통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노총 조직 내부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 뽑아주신 분들의 바람을 담아 열심히 일하겠다.

Q 임원진과 사무총국 구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또한 임기 내 첫 사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A 임원진 구성은 2월 2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구성되지만 그 전에 산별 대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책임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무총국의 개편과 본부장이상 인사는 거의 마무리 됐다. 대선기획단과 미조직비정규사업단을 임시기구로 편성하고 향후 대선과 조직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임기 내 첫 사업으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선기

획단을 구성하고 정치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노총은 정치 때문에 사분오열 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번 대선 만큼은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과정을 거쳐 정치방침을 세울 것이다. 조합원 총투표 등을 준비하고 있다.

Q 이번 투표에서 나머지 40%는 다른 표심을 보였다.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 진영의 분들과 노총 내 회원조합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구체적 복안이 있다면?

A 상대후보를 지지했던 조합원들도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이 발전하길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도 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고 또 상대후보로 나섰던 분들과도 중요사업을 논의하면서 그런 우려를 하나씩 불식시켜 나갈 것이다. 그간 한국노총이 분열됐던 가장 큰 원인은 정치방침이고 최근에는 사회적합의 때문이었다. 내 임기 기간동안 모든 중대한 결정은 최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산별들을 찾아가 만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Q 위원장께서는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리셋 코리아의 핵심에는 노동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 '이주노동자 문제'를 특별히 언급했다. 사실 상기 의제는 노동계에서 해마다 척결 내지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실행이나 효과는 미비 하다시피 한데 차기 한국노총 집행부에선 이전과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과 연결돼있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에서 비롯됐고 그것의 인과는 비정규직문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불공정 거래 등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당사자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친 노동자 정권교체를 통해 불공정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바꿔내야 한다. 균형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와 같은 핵심 노동 의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제기하는 일자리 문제가 바로 노동문제를 중심에 놓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문제를 정규직 조직 노동자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할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한다. 노동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 차기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

Q 일각에선 노동계의 구호가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라는 태생적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무조건 반대만 다거나 무조건 투쟁하겠다는 구호도 이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격변의 한국사회에서 노동계의 키를 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는?

A 노동계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투쟁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대화의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기업들은 합의 결과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넘어 이제 일반해고까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파견제 확대, 기간제 기한 연장 등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들을 노동계에게 강요하는데 저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한국노총은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다.

Q 북유럽은 극단적 투쟁 대신 노·사·정 타협의 틀 안에서 노조가 실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노조 가입률이 높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등으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은 현재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인데 당장의 복귀도, 지속적인 대화 거부도 정답은 아닌 상황인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A 북유럽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를 띄게 된 것은 역사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의 노조가 실리주의적이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가 된 것이 아니다. 북유럽국가들은 이미 3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합의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정당이 집권한 경험이 길어 노조를 적대시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북유럽은 노조 형태 자체가 우리와는 달리 산별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집중성과 대표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조합을 하면 빨갱이라는 인식을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구조는 기울어진 테이블이다. 대화는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Q KT는 대규모 단일노조이자 내부적으로는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이슈로 다사다난한 사업장이다. KT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에게 들려주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KT노조가 참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노총을 믿고 다시 한국노총의 품으로 돌아와 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가 확대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나'라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포용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조합원들은 결국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본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안식년 휴가를 활용한 가족 배낭여행 후기

전세민 조합원
본사지부 무선서비스담당 로밍사업팀



업무도 내지 못했던 해외자유여행을 그가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안식년휴가 덕분이었다. 딱 조여 돌아가는 틈니 같은 일상을 벗어나 호주의 대자연과 마주했던 2주간의 시간은 활력 그 이상이었는데, 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체험하고, 아울러 자유여행 예찬론자로 거듭나기까지 한 전 조합원은 안식년휴가제로 해외자유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팀마져 아낌없이 공개했다.

2006년 입사한 전세민 조합원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해로 근속 딱 10년을 맞았다. 이런 걸 운이라 해야 할 지 때마침 지난해 처음 시행한 안식년휴가제도로 그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여행을 다녀왔다. 11월 중순 2주에 걸쳐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한 가족의 첫 해외자유여행이었다.

국내여행은 그래도 일 년에 서너 번, 혹은 가까운 동남아를 패키지여행으로 며칠 다녀온 적은 있지만, 먼 나라를 길게 여행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전 조합원에게 안식년휴가제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입사 10년이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안식년 휴가를 호주로 가자고 결정한 건 아내였어요. 휴가를 2주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호주를 선택했죠. 제가 2000년부터 4년간 호주 멜버른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는데 당시 원거리 연애로 아내와 만남을 이어갔거든요. 부부의 추억을 되짚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다니던 학교와 동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식년휴가제도는 근속기간 10년, 20년, 30년을 채운 장기 근속자에게 2~3주간의 집중 휴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제도다. 근속기간을 채운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휴가 부여 일수에 본인 연차를 붙여 사용할 수 있기에 총 휴가 기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전 조합원처럼 근속년수 10년의 경우 안식년 휴가 부여일은 5일, 20년과

30년은 8일이다. 하지만 현재 기간을 줄여서 일부만 쓰거나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없고, 다음 해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도 없으니 그만큼 알찬 휴가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의 추억을 만든 여행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일정을 미리 연초에 계획해야 했지만 그는 추억이 담긴 호주 최남단의 멜버른과, 아이들이 놀기 좋은 휴양지 골드코스트를 꼭 찍어 각각 일주일씩 지내기로 일찌감치 정해 놓은 터였다. 단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택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약 40배 넓은 곳이고 지역 이동시간만 4~5시간은 걸립니다. 가고 싶은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호주는 제가 잘 아는 곳이고 지인들도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렴하고 잘 짜인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이다 보니 호텔, 항공, 렌트카, 여행자보험 등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 예약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렸죠. 비용도 절약해야 하고요. 호텔 할인 예약 사이트의 경우 비교는 필수예요. 마침 KT와 제휴된 사이트(www.expedia.co.kr)가 호텔요금 내 로밍까지 지원되는 곳이 있어 숙박은 거기를 활용했어요.”

자유여행이 일반적으로 두렵고 불편할 것이라 여기지만, 막상 해보면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게 전조합원의 생각이다.

“원하는 대로 일정을 잡아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바비큐도 해먹고, 가져간 낚시대로 고기도 잡고, 시골마을에서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관광지만 골라 다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자유여행의 묘미예요. 호주는 안전하고 어

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광활한 자연 속에 캥거루, 코알라, 야생펭귄 등 신기한 동물들도 볼 수 있고 특히 멜버른의 그레이트 오션로드 해안 12사도가 정말 유명해요. 가족여행지로 강추예요.”

과거 학창시절을 보냈던 캠퍼스와 유럽풍의 동네와 거리를 거닐며 10여 년 전의 추억을 되짚는 동안 부부의 정은 더 돈독해졌고, 현지 초등학교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 뛰어노는 아이들과의 만남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자극제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어요. 유럽이나 미주, 호주처럼 거리가 먼 나라는 휴가기간이 길지 않은 직장인은 사실 가기 쉽지 않은 곳이지요. 패키지로 간다 해도 오가는 날을 빼면 적은 시간입니다. 저도 안식년 휴가제가 아니면 다녀오기 힘들었겠죠. 아내가 여행 후 ‘앞으로 10년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새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전세민 조합원 주위에는 이제 9년차인 동료들이 벌써부터 안식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혹시 자신처럼 해외자유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여행계획을 빨리 잡으세요. 빠른 수록 모든 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아직은 좀 먼 10년 후의 휴가를 기대하고 있다.

채팅부터 해킹까지 영화 속 통신기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이어주는 천사가 되기도, 때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마로 나타나기도 한다. 채팅과 해킹, 그리고 공포에 이르기까지 영화 속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알아보자.



〈접속〉 PC통신의 선구자 KT 하이텔

90년대 PC통신을 즐겼던 이들에게 익숙한 번호 '01410', 14.4Kbps에서 빠르면 28.8kbps 모뎀의 초고속(?) 통신을 가능케 했던 당시 PC통신은 X세대 젊은이들의 상징으로 통했다. 낮에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원샷' 접속이 가능했지만 사용자들이 많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20~30번 정도 시도해야 겨우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이렇듯 한밤의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감수하고서라도 영화 속 주인공들은 서로를 향해 '접속'을 시도한다. 갑자기 떠나버린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닫힌 삶을 살고 있는 동현(한석규)과 짝사랑에 목말라하는 수현(전도연). 파란 모니터 화면 위에 뿌려지는 '해피엔드'와 '여인2'라는 ID의 대화는 차츰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깊은 사랑으로 번져간다.

별도의 브라우저 없이 VT(Virtual Terminal)를 통해 텍스트 형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던 당대의 PC통신은 KT의 하이텔을 비롯해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1996년 기준으로 전체 200만 사용인구 중에서 하이텔이 100만으로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천리안 55만, 유니텔 26만, 나우누리 20만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순히 텍스트만으로 메뉴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어도 당시 PC통신 기업들은 각자 차별화를 두고 있었다. 하이텔은 공무원과 회사원, 천리안은 전문직, 유니텔과 나우누리는 젊은 대학생 등을 타겟으로 각자의 콘텐츠를 발달시켜 갔다. 각 PC통신은 자유게시판, 유머, 뉴스, 증권, 금융, 홍보, 쇼핑, 부동산 등을 주제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으며 특히 익명의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채팅은 전화요금 폭탄을 감수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영화 〈접속〉처럼 채팅으로 만나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커플이 유행일 정도로 PC통신 채팅문화는 당대 X세대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 되었다.



〈펄스〉 무선 LTE 속에 숨은 악마

어느 날 스마트폰에 괴상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Please help me." 이 괴상한 문자의 정체는 바이러스다. 인간이 프로그램한 바이러스가 아닌 죽은 자의 영혼이 담긴 저주인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포함해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거의 모든 디지털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촘촘히 얽힌 네트워크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인류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하지만 영화 〈펄스〉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작고 간편한 디지털 장비 속의 악령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독특한 설정을 품고 있다.

〈펄스〉는 인간에게 편리한 무선통신이 오히려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한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전화, 동영상, 게임, 주식투자, 금융 거래, 뉴스 검색, IoT 등 모든 무선 콘텐츠들이 악마의 저주를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는 무서운 매개체가 된다. 영화대로라면 전 세계를 잇는 거미줄 같은 LTE망은 죽은 영혼들이 다니는 통로이며, 60억 인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죽은 영혼들의 숙주인 것이다.

단 한 시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인간에게 〈펄스〉는 비극이자 공포 그 자체다.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LTE 기술이 악령들에게 잠식된다면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은 한 순간이라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이 영화는 인간세계를 잇는 무미건조한 네트워크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LTE를 통해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아닌 첨단 기술에 의해 고립되고 지배당하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 당신이 해킹을 당한다면?

영화 〈네트〉는 그 어떤 컴퓨터 범죄 영화보다 매우 리얼하게 다가온다. 1995년에 제작된 〈네트〉를 2017년에 본다면 5.25인치 디스켓이 들어가는 구닥다리 컴퓨터하며, 고도비만에 걸려 '뺑'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뚱뚱한 CRT모니터에 "이거 너무 촌스럽잖아!"하며 자리를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네트〉가 진지하게 다가오는 건 그 배경이 바로 1990년대라는 것이다.

90년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시기다. 금융, 교육, 의료 등의 정보가 전산화되어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며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가 국가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가 공유되기 시작한다. 인간의 모든 생활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던 시절, 영화 〈네트〉는 해킹을 통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 주인공 안젤라(산드라 블록)를 통해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광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젤라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평범한 음악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프로그램은 알고 보니 연방정부의 극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다. 악당들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빼앗기 위해 인터넷을 해킹해 안젤라의 신상을 1급 범죄자, 알콜중독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고쳐 놓는다. 조작된 신상정보 탓에 안젤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채 '동거식 서거숙'하며 고난을 이어간다. 컴퓨터 해킹의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영화는 매우 리얼하게 보여준다.

2017년 누군가 해킹을 당한다면 그 양상은 1995년의 〈네트〉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집에서만 보더라도 컴퓨터 뿐 만 아닌 TV, 집전화, IoT,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커는 아마 집안의 시스템을 노릴 것이다. 만약 해킹이 이루어진다면 해커들이 높은 수준의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기가 인터넷망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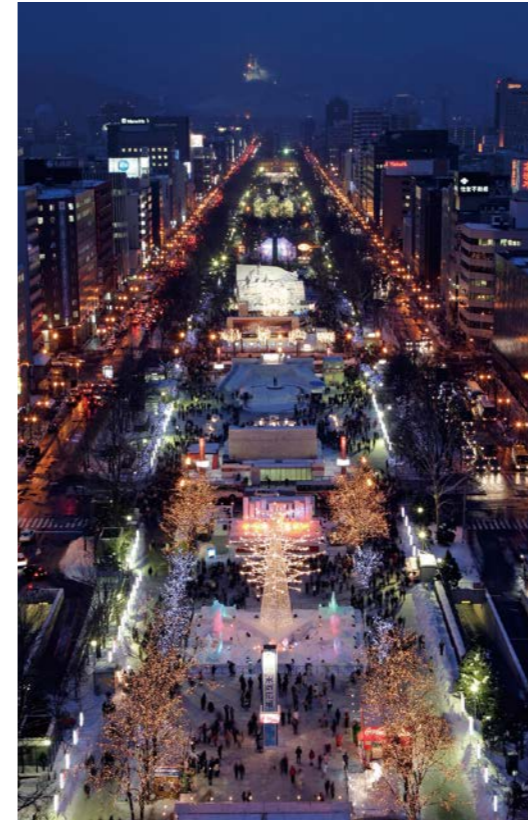


알수록 매력 있고, 갈수록 새로운 일본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본 자유여행



새 마음, 새 다짐으로 2017년 달력을 벽에 걸었다. 부지불식간 1월이 넘어가더니 2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살아간다. 똑같은 일상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하루의 반복에 지쳤다면, 매일 같은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낯선 공간으로 나를 데려가 보자. 안식년 휴가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때다. 그 여정에서 무뎠던 감각이 깨어나고 신선한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다.

일본은 모두가 만족할만한 여행지다. '민폐'를 금기시하는 특유의 문화답게 배려가 넘친다. 말이 잘 안 통해도 이방인을 위해 가능한 무엇이든 알려주려 하고, 어느 나라에나 다 있게 마련이라는 사기꾼을 만나거나 바가지를 당하기도 좀처럼 어려우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중 한곳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가까이 체력적 부담이 적고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이국적 분위기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온천, 테마파크, 망가(まん가, 만화), 마쓰리(まつり, 축제) 등 문화적 인프라도 풍부하다. 자녀나 부모, 부부 등 구성과 목적에 맞게 여행 테마를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삿포로 최대 시민공원 오도리공원 야경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설경

빛나는 눈의 도시, 홋카이도 삿포로

삿포로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의 서부에 위치한 정치, 경제의 중심지다.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 있게 구획된 시가지가 고풍스럽다. 시내에 있는 삿포로 시계탑이 매 시 정각마다 거리에 종소리를 울린다. 1878년에 건설된 시계탑 건물은 미국 개척기 시대 중서부 스타일의 목조건축양식이 인상적이다. 시내 중심에 동서로 길게 뻗은 도리공원은 여름이면 맥주광장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삿포로 최대의 이벤트인 '삿포로 눈축제'가 열린다. 삿포로에서 삿포로 맥주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공정을 알기 쉽게 전시한 곳이다. 옛날 일본 고유의 맥주 전통과 역사가 전해져 맥주 맛이 한층 깊고 진하게 느껴진다. 또한 일본에는 '라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맛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특히 삿포로에서는 수많은 라멘 가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환상적인 설경을 보고 싶다면 역시 겨울에 가는 것이 좋다.

Tip 인천에서 삿포로 신치토세공항까지 매일 1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신치토세공항에서 삿포로 시내까지는 JR열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이동수단은 역시 JR이다. 삿포로 방면으로는 쾌속어포트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5분마다(이른 아침 및 야간 시간대는 제외) 운행되며 삿포로역까지 36분이면 도착한다. 오전 8시 이전에는 보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신치토세공항역 JR 종합안내소에는 외국인창구가 있으며 영어, 한국어 안내도 지원한다.



삿포로 '맥주광장'



교토 '청수의 무대'



교토 '하나미 코지' 거리

Travel Tip

검색창에서 몇 글자 치면 다양한 일본 항공권 예약 사이트가 나오며, 여러 항공기가 인천과 김포, 부산, 대구, 제주 등지에서 일본 각지로 취항하는 것은 물론, 부산에서는 여객선도 운항돼 편하게 떠날 수 있다. 일본 내 철도 시설이 잘 갖춰져 도심에서 변두리까지 열차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보통 1.삿포로 2.도쿄 + 오사카,교토(신칸센으로 2시간 소요) 3.규슈지역 4.오키나와 등으로 나누어 여행한다. 다만 2주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행자라면 동서 900km (도쿄 - 오사카 - 후쿠오카)구간을 달리는 신칸센을 이용하여 일본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겠다. 일본정부관광국 사이트(<http://www.welcometojapan.or.kr>)에 들어가면 각 도시별 정보를 한글로 접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천년 고도, 교토

교토시는 일본 혼슈 중앙부에 있는 도시로 우리나라 경주와 비슷한 옛 도읍이다. 8세기에 일본의 도읍으로 정해져, 수도가 도쿄로 바뀌는 19세기 중반까지 약 1200여 년 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 결과 2000여개가 넘는 절과 신사, 궁, 정원,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 하나인 청수사는 와토와산 중턱에 있는 사찰이어서 마치 공중에 뜬 듯 신비한 기운을 품는다. 본당 앞에 탁 트인 '청수의 무대'에서는 교토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금각사와 은각사로 잘 알려진 로쿠온지와 지소지도 특유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일본 국보의 약 20%, 중요 문화재의 약 14%가 교토 시내에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돼 있다. 하나미 코지는 고급 레스토랑, 전통 상점들이 모여 있는 교토의 전통 거리다. 운이 좋으면 거리를 오가는 마이코(수습과정 예비 게이샤)를 볼 수도 있다. 고풍스러운 전통 상점들을 둘러보며 골목 구석구석을 산책하기 좋다. 청수사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약 20분 소요). 교토는 또한 벚꽃과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하나미 코지 거리 옆에 있는 마루야마공원은 일본 정원을 중심으로 요정(料亭)과 찻집이 들어서 있어 사계절 내내 일본 풍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의 밤 벚꽃은 꼭 볼 만한 가치가 있다.

Tip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교토시내까지 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중 JR 간사이 공항 특급 <하루카>는 간사이 국제공항과 교토를 직접 연결하는 열차다. 교토의 현관문으로 불리는 JR교토역까지 약 75분 정도가 소요된다. 승강장은 공항 터미널 빌딩 2층 D 또는 E출구로 나와서 연결 다리를 건너면 보이는 JR 간사이 공항역이다. 교토 시내를 여행 할 때는 시영버스 1일 승차권을 이용하자. 500엔이면 균일 구간 내에서 버스를 무제한 이용 할 수 있다. 구간 내에는 교토의 유명 관광지가 거의 포함돼 있다. 교토의 관광 안내소와 교토역 앞 자판기, 각 노선버스 차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평화로운 온천 마을, 규슈 오키나와

일본 최남단 규슈하면 온천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는 온천의 원천수, 용출량에서 일본 내 1위를 차지한다. 벳푸만(灣)에 면한 벳푸 온천, 현의 중앙부에 위치한 유후인 온천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온천 관광지로 유명하다. 유후인은 해발 1583m의 유후다케(由布岳, 유후산)를 비롯한 여러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 마을이다. 거리에는 미술관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매년 4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몸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찾는 곳이다. 유후인의 중심가인 유노츠보 상점거리는 오키타의 특산물, 유후인 롤케이크, 금상 고로케 등 먹을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해 걸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유후인역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

Tip 인천에서 후쿠오카, 오키타 공항까지 직항편이 매일 운항된다. 규슈 여행은 보통 후쿠오카 - 오키타 - 벳푸 - 유후인 코스로 여행한다.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하카타역까지 직행버스로 약 15분 정도 이동한 후 JR특급 <소닉>을 타고 벳푸로 가거나, JR특급 <유후인노모리>를 타고 유후인으로 갈 수 있다.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 1층에 있는 여행정보센터에서 'JR큐슈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규슈 전 지역, 북큐슈 각각 3일권과 5일권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10회 한도 내에서 JR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JR큐슈레일패스 <http://www.jrkyushu.co.jp> (한국어 지원)

아시아의 하와이, 오키나와

투명하고 맑은 이국의 바다를 보고 싶은데 멀리 갈 체력과 시간이 안 될 때, 오키나와 보다 적절한 선택지는 없을 듯 하다. 오키나와 현은 일본 큐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류큐 열도를 가리킨다.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 한 겨울에도 따뜻한 곳을 찾는 이들에게 적격이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찾기 전에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본섬과 본섬에서 가까운 몇몇 섬들은 휴가철에 북적대기도 한다. 대신 본섬에서 국내선 혹은 배를 타고 더 멀리 나가면 한 없이 평화롭고 고즈넉하지만 시리도록 맑고 아름다운 바다와 수중환경을 접할 수 있다.

Tip 굳이 일본 본토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오키나와 본섬으로 향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피치항공 등 매우 다양하다.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대중교통 보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다. 오키나와 본섬 구경만으로도 최소 3박 4일, 바다 좋아하고 거기가 스노클링, 다이빙 마니아라면 오키나와의 다른 섬들도 방문해야 하니 일주일도 짧다. 본섬에 위치한 '토마린' 항구에서 주변섬으로 들고 나는 배편이 매일, 매시간 운행한다.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즉 일본 보다 막상 대만에 더 가까운 오키나와 섬인 미야키섬, 이시가키섬 등은 배편 보다 일본 국내선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비행시간 1시간)

규슈 오키타 '벳푸 온천'



오키나와 바다 전경



